

# 황선홍호 “日 꺾었다”...조 1위로 8강行



22일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 황선홍 vs 신태용... '한국인 지도자 지략대결' 26일 파리올림픽 티켓 걸고 외나무다리 격돌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 축구'의 전설'까지 맞대결이 성사됐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황선홍 감독과 인도네시아를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이 '파리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2일 카타르 알라이안(알리안)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조별리그 3전 전승을 달성한 황선홍호는 우승 후보로 꼽힌 일본을 누르고 B조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A조 2위를 차지한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2시30분 알두바이 리파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펼친다. 조별리그 일정이 먼저 끝난 인도네시아는 A조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강호로 꼽히던 호주(2부 1패)를 누르고 8강

행 티켓을 따냈다. 올해 처음 AFC U-23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며 역대 처음으로 8강 무대까지 올라서는 기쁨을 맛봤다. 신 감독은 황 감독의 국가대표 사령탑 '선배' 격 지도자다. 지도자 생활을 더 빨리 시작한 지도자는 황 감독이다. 1988년생으로 신 감독보다 2살 더 많은 황 감독은 2003년부터 코치 생활을 했다. 신 감독의 지도자 경력은 2005년 시작됐다. 2년이 됐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서 경험은 신 감독이 훨씬 풍부하다. 2014년 대형 신봉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끈 신 감독은 연례별 대표팀을 지휘하다가 2017년 A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부임,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을 책임졌다.

황선홍	신태용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1968년 충남 예산	출생 1970년 경북 영덕
2003년 시작	코치 경력 2005년 시작
2021년 U-23 감독	한국 국가대표팀
2024년 A팀 임시감독 겸임	주요 감독 경력 2015년 U-23 감독
	2017년 A팀 감독
B조 1위, 3승 0패	2024 아시안컵
vs UAE (1-0) 승	조별리그 성적
vs 중국 (2-0) 승	A조 2위, 2승 1패
vs 일본 (1-0) 승	vs 카타르 (0-2) 패
	vs 호주 (1-0) 승
	vs 요르단 (4-1) 승

2021년부터 연례별 대표팀을 이끌어 온 황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임시 사령탑' 신분으로 지난달 A대표팀 2경기를 맡았다. 사실 신 감독은 8강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만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이기면 조국에 아픔을 안기고, 지면 현재 소속팀인 인도네시아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 8강에서 패하는 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이

다.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공갈 받는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4강까지는 가야 올림픽 본선행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그보다 아래 순위라면 빈손으로 돌아가 오는 7월 파리에서 열리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한다. <연말뉴스>

## 광주FC, ACL 엘리트 본선 직행

8월 대진추첨 결과에 따라 9-10월 중 홈 경기 개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2024-2025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광주는 23일 "ACLE PO 상대팀으로 유력했던 호주 A리그 '센트럴 코스트 매리너스FC'가 AFC CUP 결과와 상관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ACLE 진출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소속 클럽 센트럴 코스트 매리너스FC는 호주 A리그 2위를 확보하였고, 현재 호주 A리그 1위 웰링턴 파닉스FC(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소속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대회 출전이 불가함에 따라 본선 진출로 직행하게 됐다. 이에 광주는 울산 HD,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ACLE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룹으로 나뉘어 각 12팀씩 진행된다. 각 그룹 별 12팀은 홈과 원정에서 각각 4경기씩 총 8경기를 치르고, 각 그룹 상위 8팀은 홈과 원정 맞대결을 펼친다. 최종 8강전부터는 중립지역에서 단판으로 진행되며, 동-서 팀들이 맞붙는다. 광주FC는 울산, 포항을 제외한 9개 팀 중 8개 팀과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르게 된다. 동아시아 쿼터를 고려할 때, 일본(3), 중국(2-3), 호주(1), 태국(1-2), 말레이시아(1) 팀과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대진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르면 9월 16일,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첫 홈 경기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희중기자>



23일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회원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남 소년체전 역대 최고대회로'

전남도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관계자 회의 '성공 개최' 결의

전남도체육회가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육대회를 'D-30'일을 맞아 성공 개최를 결의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3일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육대회를 위한 회원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소년체전이 30일 남은 시점에서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해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협조사항 공유 ▲체육행사 안전매뉴얼 시행 안내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육대회를 위한 회원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소년체전이 30일 남은 시점에서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해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메달 획득 후 단체사진을 찍는 세한대학교 유도부. 왼쪽부터 양창일 코치, 김민성, 최승일, 양지성, 노박환 감독 <세한대 제공>

## 세한대 최승일 '금빛 메치기'

양구평화컵전국 유도, 김민성 '銀'·양지성 '銅'

세한대 유도부 최승일이 2024 양구평화컵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승일은 최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90kg급 결승에서 윤석일(동의대)을 상대로 지도승을 따내며 정상에 차지했다. 최승일은 앞서 32강전에서 이현수(국체대)를 어깨들어메치기 한판승으로, 16강전과 8강에서는 박정현(용인

대)와 박시우(경기대)를 각각 지도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 김대명(용인대)을 연장 접전 끝에 업어치기 되치기 절반승으로 제압한 후 결승에 진출했다. 세한대는 +100kg급에 출전한 김민성(학번)과 양지성(학번)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박희중기자>

## "프로무대 당당히 서는 것...내 존재의 이유"

'5툴 플레이어' 원광대 정영웅이 꿈꾸는 야구인생

"야구 포기는 없다...올 가을 프로 재도전" 현역으로 군 제대후 복학 "매 경기 간절"

"야구가 너무 좋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원광대 야구부 정영웅(24)이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 E조에서 4경기에 출장해 14타수 7안타 5홈런 3득점 3타점 3타율 0.643, 출루율 0.611, OPS 1.254로 활약중이다. 중견수로 활약하면서 테이블세터로서 빠른 발을 과시하며 도루도 3개나 기록중이다. 지난 18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U-리그 E조 세한대와 경기에서는 1번 타자로 나서 3타수 3안타 4타점 1득점 2도루 2볼넷을 기록하며 원광대의 13-3 대승을 이끌었고 경기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영웅은 화정초에서 야구를 시작, 무등중과 광주일고를 거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컨택이 뛰어나며 도루 능력까지 갖춘 왼손타자다. 화정초와 무등중 시절 투수로도 뛰었던 만큼 강

한 어께도 장점이다. 동강대를 거쳐 원광대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의 꿈에 도전중이다. 정영웅은 지난 2020년 제5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타점상을 받는 등 맹활약하며 원광대의 전국대회 우승에 기여했다. 당시 대회에서도 32강부터 결승까지 5경기 모두 중견수로 선발 출장, 22타수 10안타 7득점 7타점(타율 0.455) 활약으로 원광대의 우승에 공헌했다. 정영웅은 5경기중 4경기를 2번 타자로 나섰다. 매 경기 출루, 쉬지 않고 베이스를 홈까지 상대팀 마운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었던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다. 잠시 좌절하기도 했지만 정영웅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일단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도전기로 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면서도 개인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정영웅의 상황을 안 군부대의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프로무대 도전에 나서는 정영웅 <원광대 제공>

도움으로 야구배트를 가져가 꾸준히 연습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친 정영웅은 예비역으로 다시 원광대 유니폼을 입었다. 실력은 변함이 없었다. 간절함에 집중력을 더해 U리그에서 맹활약중이다. 정영웅은 "지명이 안되고 잠시

힘들기도 했지만 야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야구가 너무 좋다. 다시 프로에 도전하겠다 마음 먹고 군복무를 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프로 지명을 받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미래를 기약했다. <박희중기자>